고려 ‘그림 부처님’ 붓끝으로 나투셨네

혜담 스님 ‘위대한 민족문화유산 고려화불 대전’
4월 2일~13일 예술의 전당 V갤러리서

700년 전 초강대국이었던 몽골에 당당히 맞선 고려는 당대 최고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화불’(畵佛)을 창조한 문화선진국이었다. 그래서 우리 고려화불은 문화유산의 정수로 그

월제 혜담 스님(계태사 고려화불학술연구소 이사장)은 40여년 동안 고려화불 재현에 매진해왔다.

아름다움과 장엄함, 화려함은 세계미술사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걸작 중의 걸작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오면서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으로 인해 고려화불의 맥은 끊기게 된다. 그리고 지난 700년 동안 그 맥을 잃고 수많은 화불 작품들 역시 해외로 약탈당했고 훼손되어 소멸되었다. 그래서 이제 고려화불은 전 세계에 불과 160여점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인류문화사적 가치를 지닌 고려화불은 국내에도 20여점만이 보존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고려화불의 복원과 재창조를 위해 무상무념(無想無念)의 붓끝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화폭에 펼쳐온 스님이 있다. 40여년 동안 고려화불 재현에 매진해온 월제 혜담 스님(계태사 고려화불학술연구소 이사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혜담 스님의 ‘위대한 민족문화유산 고려화불 대전’이 4월 2일~13일 서초구 예술의 전당 V갤러리에서 열린다.

스님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고려화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고려화불의 문화사적, 민족사적, 인류사적 가치를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고려화불을 복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잊혀진 불교 역사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양에도 상징하는 심오한 의미가 있으며 입체감은 보는 이의 위치에 따라 모양도 같이 변하죠. 이 모두가 우리 조상들이 빚어낸 위대한 문화유산이죠. 700년의 시간을 넘어 고려화불의 위대성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스님은 이번 전시를 위해 매일 하루에 18시간씩 작업을 하며 작품을 완성시켜 나갔다. 이를 통해 스님은 ‘오백나한상’ ‘관경 16관 변상’ ‘수월관세음보살’ ‘열반상’ 등 고려화불 65점으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특히 5m 크기의 초대형 수월관세음보살도는 3년의 노고가 담긴 작품이다.

“어느날인가 꿈속에서 관세음보살 화현이 나타나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 3년 걸려 작품을 완성했어요. 워낙 대작이어서 법당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가로로 눕혀서 작업을 하다보니 제대로 작품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와서야 작품을 세워서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섬세하게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오백나한상 역시 스님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오백나한과 공양발원하는 100여 대중을 합하면 600여 명이 한 작품 안에 들어간다. “그동안 오백나한상은 엄두가 나지 않아 부분도만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크게 발심해 오백나한상 전체를 그려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얼굴 표정도 몸짓도 다 다른 오백 나한상을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어 쌀 알 하나하나로 인물수를 세면서 작업했죠”

열반경을 화폭에 옮긴 열반상 또한 주목할 만하다. 스님은 “부처님은 열반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진리의 등불을 삼고 살아라 마지막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 속가 어머니는 이 그림을 보시고 통곡소리가 천지가 울리는 것 같다며 감동을 표현하셨다”고 설명했다.

혜담 스님은 지난 40여년 동안 고려화불 복원 작업에 매진해 왔다. 그렇다면 왜 스님은 이 오랜 시간 고려화불에 매달려 온 것일까? 이에 대해 스님은 잊혀진 우리 문화유산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라고 한다.

“고려화불은 고려시대 찬란한 불교문화 유산이자 종교를 초월한 선조들의 예술혼이 깃든 작품입니다.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보다 앞서 시작된 고려문화 전성기에 조성된 화불은 세계미술사에서도 빛나는 세계적 전통문화예술로 그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절되었던 고려불화를 재현하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국내 작품 외에도 다양한 불교 국가

40년 동안 ‘고려화불’ 재현에 매진
“부처님 그림(佛畵) 아니라 그림 부처님(畵佛)”
수월관음상 · 오백나한상 등 ‘주목’

의 불화도 함께 선보인다. 인도 서역 9세기 작품은 물론 중국 9~10 세기 작품 일본의 13세기 작품 등을 복원해 관람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스님은 앞으로 고려화불을 소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 부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부처님 그림)라고 하지 않고 ‘화불’(그림 부처님)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제 화불이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불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전시공간을 마련해 대중들이 부처님의 뜻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02)580-1708

정혜숙 기자

혜담 스님의 ‘위대한 민족문화유산 고려화불 대전’이 4월 2일~13일 서초구 예술의 전당 V갤러리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오백나한상’ 등 고려화불을 재현해 관람객을 찾아간다.

금강경 한자에 ‘一佛’ 을 세우다

죽봉 황성현서전…4월 2일까지

‘필묵연(筆墨緣) 60년’ 을 기념한 죽봉 황성현서전이 3월 27일~ 4월 2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황성현 작가는 〈금강경〉 〈반야심경〉 등을 작품으로 담아냈다. .

평소 금강경 쓰기에 몰입한다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금강경〉 전문을 12폭 병풍으로 선보인다. 황 작가가 〈금강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금강경〉이 지닌 거대한 사상 때문이다. 황 작가는 “시작이 끝이고, 끝이 다시 시작인 그 반복과 윤회의 세계가 바로 〈금강경〉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작가는 한 자 한 자 〈금강경〉을 쓰면서 마치 부처님을 대하듯이, 일자일불(一字一佛)의 몰입을 다해 작품에 임했다. 작가는 “한 자를 완성할 때마다 일불을 세우고, 한 자를 써낼 때마다 일배(一拜)의 정성이라 여기며 5400자에 성심을 다했다”고 전한다.

작가는 〈반야심경〉 역시 수천 번 이상을 썼다. 이번 전시에서는 〈반야심경〉과 〈화엄경〉을 새긴 양각 나무 항아리 작품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작가는 “불경을 많이 쓰게 된 것은 지영 스님의 〈해서천자문〉을 수백 번 임서하면서 욕심 없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금강경 5400자 병풍에 담아
나무 항아리 반야심경도 ‘눈길’

이밖에도 작가는 국전지 11장에 쓴 한산시를 비롯 〈채근담〉 〈논어〉 〈노자〉〈도덕경〉〈천자문〉 등을 해서, 소해, 세필로 펼쳐냈다.

화엄경 나무 항아리

한편, 황성연 작가는 1941년 경기 고양 출생으로 고려대 경영대학원과 홍익대 미술대학원에서 수학했다. 1971년 일심서예학원을 창립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월간서예〉 전 발행인, 일심서예출판사 대표 등을 역임했다. (02)720-1161~2

정혜숙 기자

뉴욕에서 빛난 한국의 사경… ‘귀국전’

4월 3일~ 9일까지 갤러리M서

한국사경연구회가 제7회 한국사경연구회 뉴욕 플러싱타운홀 초대작품 귀국전을 연다.

4월 3일~ 9일까지 종로구 낙원동 갤러리M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한국사경연구회원 23명이 전통사경을 계승한 작품과 현대사경 작품 46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80일 동안 뉴욕에서 열린 특별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 회장은 “플러싱 타운홀은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링컨센터 등 뉴욕시의 지원을 받는 33개 문화 단체 중 하나이자 2012년 뉴욕시 랜드마크 건물로 지정됐다. 건물 준공 1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 행사로 열린 한국 전통사경 초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룬 것을 기념해 개최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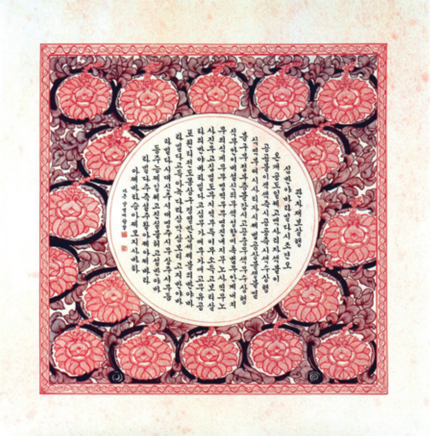
특히 이번 전시에는 1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현지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80일 뉴욕 전시 1만명 관람
사경연구회원 23명 작품 전시

또한 뉴욕의 정계, 문화계 귀빈들과 박물관, 미술관 관계자들이 대거 관람해 한국 전통사경의 세계사적 의의와 가치 및 예술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김 회장은 “사경은 고려시대 선조들이 이룩했던 빛나는 문화적, 예술적 성취였다. 하지만 조선왕조 이후 단절되었고, 이제 600년의 세월을 뛰어 넘어 한국사경연구회원들에 의해 세계 제일의 도시 뉴욕에서 다시금 부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02)737-0073

정혜숙 기자



한국사경연구회가 귀국전을 펼친다. 작품은 강경애 作